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공동생활기념(28주년) 주일입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평양노회 북시찰회가 신장위 교회에서 지난 5일(목)에 있었습니다.
- 어린이학교 개학여행이 9일(월)부터~11일(수)까지 단양 소노벨리조트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다음 주일(15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후원회 총회가 다음 주일(15일) 오후 4시30분에 모입니다.
- 이사한 가정
김연수 집사(무림사랑방) : 의정부시 송산1단지 112동 203호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공동생활 기념주일 (28주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0 호

2026년 3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스물 여덟의 결

“28주년 공동생활 기념주일 맞아 글을 쓰려니 몇 해 전 25주년을 기념하며 사랑방지에 실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지난 글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의 집에는 결이 독특한 나무 도마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무 테의 모양이 아닌 규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기괴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무늬를 지닌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밑동을 잘라 만든 것입니다. 나무가 베어지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 남아 있는 밑동이 자체적으로 잘린 부분을 감싸며 안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의 규칙적인 모양이 무너지고 이상하고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상처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느티나무가 걸쭉데기부터 안으로 조금씩 자라면서 가장 연약했던 나무의 속살을 감싸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가 꼭 공동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생활은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의 흠과 아픔을 감싸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리고 연약할수록 조금만 움직이고, 단단할수록 더 열심히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곳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상처 입은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모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모두 그런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덜 아픈 사람이 그 상처를 감싸서 위로하고 달래주며 생활하는 곳이 바로 공동생활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긴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동체가 온전하고 성화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겠구나

싶어 공동체에 합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무늬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그러져 보이고, 못나 보이고 이상해 보이질 모르지만, 결 하나하나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애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어눌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상처투성이지만 나를 보듬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쓸모없는 밑동이 아니라 신기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도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방은 품어주었습니다. 그간 사랑방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전히 상처를 감싸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운 마음이 샘솟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부동켜 안아주고 위로와 권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신비의 무늬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인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죄 많은, 상처 입은 죄인을 불러 감싸 안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치 상처를 보듬는 나무의 밑동처럼.

공동생활 식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따라 오늘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결들을 만들어 내면서 말이죠.

스물여덟 줄의 결들에 얼마가 더 보태질지 모르지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결들이 모여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값진 나무가 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
 <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151, 505 / 510

기도 :

성경 : 사도행전 20장 17-18절

제목 :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다

* 본문은 당시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내적 혼란, 외부 핍박)
 어려움을 극복하는 개인과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1. 복음 전도자, 바울의 자세 <17-21>
 - 1) <19a>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 2) 바울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 3) 어려울 때, 보이는 일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듯이 하십시오.
2.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사명감 <22-24>
 - 1) <24>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 2)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 3) 어려울 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소명감을 갖고 충실하십시오.
3.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다 <25-30>
 - 1) <28> “...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 2)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주인과 귀중함을 깨우쳐주었습니다.
 - 3) 어려울 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여 극복하십시오.

세상의 변화가 참으로 빠릅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AI를 사용하면서 편하고 좋긴 한데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인 경제와 정치, 심지어 전쟁의 양상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도래가 예고된 지금,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연의 질문 앞에 다시금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인간의 보조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AI는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판단의 구조,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자유의지나 도덕적 판단까지 완벽히 이해하거나 모방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AI의 윤리적 기준과 제도 마련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간들, 결국 세상을 이끄는 것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 AI가 인간의 지능을 앞선다고 할지라도, 결국 세상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1984년 사랑방을 창립하던 때에도 타임지에 컴퓨터가 등장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나아가 이 변화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엄중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고 도덕적 판단까지 넘보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과연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껍데기뿐인 형식과 권위주의에 매몰된 모습이 아니라, AI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영적 생명력'과 '참된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개혁이 더욱 절실합니다. AI가 효율과 정확성을 자랑할 때, 교회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보듬고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되고, 기술의 질서가 세상을 재편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갱신'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싹사랑방 김병우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엘서 2 : 27-29 인도자
1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6 : 37 인도자
90, 15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사도행전 2 : 14-40 설교자
335 생활공동체
“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10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충환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돌이킨 사람들. 하루에 삼천 명이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분석이나 설명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무엇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무언가로 시작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생각하는 삶. 성령이 일하시면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는 비로소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분별하게 휩쓸리던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적 위안이 아닙니다. 2천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의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영적 무지를 깨닫고, 세상의 영광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진정행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학교의 새로운 일 년을 세 꾸러기가 함께 시작했어요. 입학 예배를 드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전보다 조용한 듯 시끄럽고 잔잔한 듯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 시작 시간을 9시로 당겼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한 바퀴 돌며 만나는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하루하루 변화도 조용히 느껴봅니다. 자연예배당에 들어오면 외투만 정리하고 음악에 맞추어 함께 체조를 합니다. 첫 날은 깔깔 웃느라 잘 못 따라하더니 다음날은 신나서 체조를 합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서로 어제 일을 칭찬합니다. 며칠 안 지났는데 2월이랑 다르게 의젓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겨진 등교로 더 일찍 아침을 먹은 꾸러기들은 각자 먹을 오전 간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아침 모임 끝나고 바로 간식을 먹어요. 금요일 아침 등교차에서 오늘 점심은 뭐냐고 빨리 먹고 싶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왔고 간식도 가방에 들어있지만 점심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간식 먼저 먹을 건데 왜 점심이 궁금하냐니까 밥이 최고라고 요리선생님들이 너무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점심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한 주간 날씨가 오락가락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2026년 3월 3일 (화) 어린이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4학년 전유나, 1학년 이지음, 차하민, 황보아름 네 명의 친구들이 어린이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답니다. 입학식에는 목사님의 말씀과 재학생들의 축복송, 또 빠질 수 없는 입학생들의 귀여운 장기자랑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중하고

예쁜 아이들을 어린이학교로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입학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어린이학교에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보아요!!♡

3월 9일(월) ~ 3월 11일(수) 까지 단양으로 개학여행을 갑니다. 아이들과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김다운, 이하은, 박윤아, 정소니, 최진용. 5명의 신입생과 함께 개강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긴장과 설렘을 안고 도착한 천안에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경주에서는 함께 만드는 식사와 레크레이션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서일기 쓰는 방법을 배우고 에어돔 축구를 했습니다. 멋쟁이들은 4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신나게 필드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짧은 산책과 함께 영화 <YMCA 야구단>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보낸 이후, 애슐리로 가서 양껏 먹는 행복한 한 때를 보냈습니다. 잔뜩 부른 배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화랑마을. 활도 싸보고, 특수 코스들도 돌면서 색다른 즐거움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의 공동체 훈련을 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몸과 마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이 이때를 최고로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포항에 들어서 학년별로 시간을 다채롭게 가지고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피드백까지 마친 멋쟁이들의 얼굴은 사뭇 긴장을 덜어내고 유쾌해보였습니다. 여행을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기 일상이 시작될 텐데, 모두 힘과 용기를 내어 즐겁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일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고향 가기 전 진용이와 함께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세차하러 갈래?”하고 물었는데 선뜻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차를 하고 물기와 차의 구석구석을 닦았는데 제법 일을 잘 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두 아이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가서 발일을 도왔습니다. 3대가 발일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쉽게 하는 방법과 요령을 알려주고 선대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지 못했던 시간이었는데 모처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을 다녀 온 후 겨울의 추위가 따뜻해졌을 때 집 앞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서랍장과 침대 받침을 분해했습니다. (본래 남의 일은 열심히 도와주는데 자기 집일은 잘 안한다는 말을 듣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일에는 두 아들(진용, 민용)과 함께 했습니다. 전동드릴과 망치를 가지고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들이는지 설명도 했습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잘 도와주셔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마냥 아이로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잘 알아듣고 일을 곧잘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의 어른들이 많아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마냥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원리를 설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입장에 따라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종종 일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할 때보다 힘이 되어 주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는 점차 자신의 생각이 분명해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논쟁이나 설득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91장, 292장

성 경 : 야고보서 3장 13절~18절

말 씬 :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혼란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 정의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 전쟁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좋은 것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요르단 임채정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요르단에 계신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새 학기를 맞아 개학한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여행 중인 멧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28주년 공동생활 기념주일을 맞아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기념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지킴이를 하며 공동체 곳곳을 청소하고 주일예배 준비도 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동식사를 정성껏 마련하고 떡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여 29년차 공동생활에 대한 새로운 다짐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